

201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 모의평가 문제지 (인문계열)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 인지를 설명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문 (나), (다), (라)를 활용하여 유 추하시오. (50점, 750±50자)

(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 금은 6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2011년에는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62.1%였는데, 1년 사이 양성 간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통계청에서 201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 경제 활동 인구는 약 8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2,511만 7천 명)의 3.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임금 근로자의 75%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같은 시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3만 원으 로 외국인 임금 노동자에 비해 약 43만이 더 많다.

(나)

누구나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자 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가리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며, 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된다.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는 존재량이 인간의 욕구보다 많아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무상재 또는 자유재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햇빛, 공 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희소성이 존재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 가 있는데, 이를 경제재라고 한다.

그런데 희소성은 단지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희소성의 경제적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딸기가 바나나 보다 적게 재배되어 상대적으로 구하기 힘든 과일에 속하지만, 딸기보다 바나나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희소한 재화는 더 적게 생산되는 딸기가 아니라 더 많이 생산되 지만 더 비싸게 거래되는 바나나라 봐야 한다. 이처럼, 재화의 존재량이 적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재화의 희 소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은 원하는 양과 존재하는 양 사이의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며 원 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지지는 욕구와 필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 가격에서 소비하려는 구체적 소비 계획량을 수요량이라고 하고, 모든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 계획 전체를 수요라고 한다. 그리고 이 소비 계획 전체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수 요 곡선이다. 한편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특정 가격에서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량을 공급량이라고 하며, 모든 가격에서의 생산자들의 공급 계획 전체를 공급이라 고 한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이다.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즉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 도달한 상태 를 시장 균형이라고 한다.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가격 수준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이때는 공급자 간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까지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가격 수준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까지 가격이 상승한다.

<다음 장 계속>

(라)

이미 19세기 말부터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1920년대 남성 독자 대비 여성 독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1930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1.9%이었으며, 한글 또는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10.5%에 머물렀다. 게다가 특별한 부호(富豪)* 가정에서 편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여성은 책 읽을 틈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대부분이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의 여성 독자는 곧 극소수의 초기 신여성, 여자 유학생을 의미하였다.

여성의 책 읽기를 가능하게 한 본격적인 양성 평등, 인간 평등 시대의 개막은 누구보다도 조선 여자에게 더할 수 없는 행운이 돌아온 기회이기도 했다. 1919년 OO일보는 여자가 도서관에 많이 출입하며 공부하는 일을 두고 '최근의 기이한 사회적 현상'이라 했다. 결국 여성의 책읽기는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였다. 여성은 '식민지 속의 식민지'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여성 독서의 양상은 심각한 여성 내부의 모순과 함께 식민지 전체의 중첩된 모순을 상징한다. 유·무식의 문제에 있어 여성 내부의 불균등·불평등은 남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1920년대 초 신문과 잡지에는 일본 또는 서구에 유학을 다녀온 극소수 여성이 주역(主役)으로 등장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와 신문 기사가 넘쳐났다. 이미 1924년에 이르면 민간 신문의 '가정'면이 독립하여 여성 독자를 끌고자 하였다. 그러나 1929년, 오늘날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공·사립 여자고보(女子高普)에 입학한 여성은 조선 전체에서 1,465명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다수의 여성은 책 같은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여성의 무지(無知)는 남성의 그것처럼 죄악이나 수치로 여겨졌다. "문맹이며 돈과 시간이 없어도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권고가 계속되었다.

*부호(富豪):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 있는 사람.

<다음 장 계속>

[문제 2]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38명 목격자의 행동을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책임 전가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 15분, 미국 뉴욕의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자신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술집에서 야간 당번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차를 주차하고 밖으로 나오자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그녀의 등에 칼을 찔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칼로 날 찔렀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주차장 주변 집들에 불이 켜졌다. 어떤 사람은 측은한 마음에 “그 여자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소리쳤다. 그때 범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주차장 주변 집들의 불은 다시 꺼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던 범인은 거리가 조용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자 범행을 마저 끝내기로 하였다. 제노비스는 다시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다. 아파트에서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다시 도망갔다. 제노비스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 복도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하지만 몇 분 후에 또다시 남자가 찾아와 범행을 끝내었다. 이 사건은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동안 일어났다. 그 긴 시간 동안 여성이 칼에 찔리고 쓰러지는 것을 본 목격자가 38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모두 창가에서 구경만 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은 목격자를 한 사람씩 불러서 심문하였다.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다른 누군가가 도와 줄 거라 생각했다” 였다.

(나)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과도함과 부족함은 악덕의 특징이요, 양 극단 사이에 적절함을 선택하는 중용이 품성의 덕이 갖는 특징이다. 이때의 적절함이란 1과 5사이의 중간이 3인 것처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중용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한 끼 식사로 한 공기의 밥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은 사람에게는 두 공기 혹은 그 이상의 밥이 중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삶은 중용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과 더불어 실천 의지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예컨대 어린 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그 원인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행동도 모두 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의 경우 의지의 나약함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다음 장 계속>

(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명령하는 도덕법칙 또한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은 자연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율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의지 그 자체로 도덕법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율적이면서 도덕적인 의지로 선의지를 제시하였다. 선의지란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인 동시에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의지이다. 또한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선이다.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단순히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순수한 의무 그 자체에 대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다. 도덕적 의무는 다른 동기가 아닌 오로지 의무 자체를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의무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필연성을 의미한다.

칸트는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얻고자 행동하거나 다른 어떤 결과를 예상하여 행동하고, 아니면 행위자의 감정 또는 경향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였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그를 도왔을 경우에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결과를 고려하거나 감정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것 일뿐, 순수한 도덕적 의무감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

서양의 덕 윤리는 선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덕한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덕을 습관화하여 덕을 지닌 사람이 되었을 때 선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추상적인 도덕 원리보다는 덕을 함양한 사람이 하는 판단과 행위 실천에 더 관심을 두며, 덕을 함양한 사람의 내적 특성, 성향, 동기 등과 같은 행위자의 성품에 주목한다. 또한 덕 윤리는 당면한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품성은 공동체나 인간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탁월한 품성으로 파악된다. 덕 윤리는 이러한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거나 연마하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제안한다.

동양의 유교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강조하는 도덕 지향적인 특징을 보인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누구든지 노력하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는 “이익이 될만한 일을 보거든 그것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건리사의(見利思義)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이로움보다는 올바름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더 중시하였다. 행위에 있어 이익을 판단하기 전에 항상 옳은 일인지를 살피라는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일정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연기(緣起)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본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생각, 태도,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불교의 자비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우주 만물이나 타인과 불가피한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상호의존성을 철저히 깨달을 때,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남의 슬픔도 같이 슬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비의 마음이 나타난다. 자비의 마음은 타율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끝>